

아이비·김지우 “간절했던 ‘뮤지컬 물랑루즈’...합격 기적이죠”

뮤지컬 ‘물랑루즈’ 최고의 스타 ‘사틴’ 역 수개월간 오디션 거쳐...“지금도 꿈 같아”

“응기 내서 오디션을 지원했는데, 사실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백번씩 고민했어요. 그런데 행운이 찾아왔죠. 이걸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아이비)

“제가 이번 오디션에 첫 번째로 지원한 배우더라고요. 정말 간절했고, 오디션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넣었죠. 큰 역할이고 제겐 새로운 도전이에요.”(김지우)

오는 20일 막을 올리는 뮤지컬 ‘물랑루즈’에서 최고의 스타 ‘사틴’을 맡은 배우 아이비와 김지우는 오디션 합격이 지금도 꿈만 같다고 했다. 5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운이 좋았다”며 “저희만 보기에 아깝다. 하루빨리 관객과 만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니콜 키드먼과 이완 맥그리거가 출연한 2001년 동명의 영화가 원작이다. 뮤지컬 영화 붐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그 배경인 1980년대 프랑스 파리의 클럽 ‘물랑루즈’가 무대 위로 옮겨진다. 보헤미안의 핫플레이스인 이곳에서 최고의 스타 사틴과 젊은 작곡가 크리스티안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캐스팅은 7개월이 넘는 오디션 과정을 거쳤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수십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야 했다. “이렇게 어려운 오디션은 처음이었다. 사실 서로 떨어질 것 같

다고 고민도 나왔다. 최선을 다했지만, 떨어지면 같이 공연을 보러 가자고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합격 연락을 받고 김지우는 많이 울었다고 했다. 원작 영화를 워낙 좋아했다며 브로드웨이 뮤지컬 소식에 2019년 직접 뉴욕에 다녀오기도 했다. “(합격이) 꿈인가 싶었어요. 울면서 아이에게 기도를 많이 해줘서 붙었다며 고맙다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연습을 많이 해서 붙은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울었죠. 지금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이비는 스무 살 때 이 영화를 보고 받은 충격을 잊지 못한다고 떠올렸다. “이 작품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최고의 작품을 만났고, 연습하면서 밀려오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뮤지컬 속 사틴은 영화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김지우는 “영화 속 니콜 키드먼은 등장하자마자 ‘헉’ 소리가 날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공연에선 강한 여자의 모습이다. 재정적 위기에 빠진 물랑루즈를 살리고 가족을 지키려 한다. 이미 최고의 스타로 산전수전을 겪었기에 연약하거나 순수해 보이는 것보다 힘있게 표현된다”고 설명했다.

1막이 쇼적인 화려함이라면, 2막은 연극

적인 드라마가 강조된다. 사틴과 크리스티안, 공작과의 삼각관계도 강화된다. 아이비는 “영화와는 살짝 내용이 다르다. 뮤지컬에선 공작과의 삼각관계가 있어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며 “공작이 영화와 달리 매력 넘치고 재력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사틴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대형 규모의 무대와 화려한 의상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틴은 총 16벌의 의상을 입는다. 두 사람은 의상 피팅을 위해 직접 호주에 다녀오기도 했다.

“16벌을 만드는 사람이 각각 달라요. 저희도 가서 놀랐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의상 디자이너가 직접 와서 지금도 계속 수정하고 있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대안해요. 무대 세트도 굉장히 화려해요. 이렇게 조명을 많이 쓰는 작품은 저도 처음이죠. 배우들이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예요. ‘우와’할 정도의 자본주의 뮤지컬을 맞볼 수 있을 거예요.(웃음)”(아이비)

김지우도 “연출과 음악, 의상 모두 멋있다. 1막과 2막 오프닝이 모두 무대를 찢는다”며 “사실 코르셋으로 강하게 조이는 옷이 많은데, 초반에 의상을 빨리 갈아입어야 해서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뮤지컬은 더 풍성한 음악을 예고하고 있다. 원작의 명곡은 물론 마돈나, 비운세, 아델, 리한나 등 세계적으로 히트한 팝을 여러 곡 섞어 재탄생시켰다. 영어권에선 익숙한 팝송이지만 한국에서도 유희할지 시범대다.

김지우는 “저도 이 부분이 걱정돼 음악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봤다. ‘배드 로맨스’, ‘복



시’가 뭔지 모르는 나이가 지긋한 지인도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 한국 관객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말에 믿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이비와 김지우가 함께 공연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로의 감정을 쏟아달라는 말에 아이비는 “지우는 한국의 니콜 키드먼이다. 등장하는 순간 다리 길이에서 끝난다”고 웃었다. 이에 손사래 치던 김지우는 “언니의 노래를 듣고 정말 놀랐다. 바탕이 팝송인데도 조금의 이질감도 없다. 늘 고맙고 든든하다”고 치켜세웠다.

또 상대 역인 크리스티안을 연기하는 홍광호와 이종주에 대해선 “아이 같은 해맑음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둘 다 사랑스러워요. 순수한 청년으로 변신해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흔들 거라고 확신해요.”

한국 배우들만의 색을 더한 이번 공연은 아시아 초연이다. “연출진이 말하기를 한국 공연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고요. 브로드웨이와 호주 공연 그리고 투어팀까지 장점만 합쳐놓았다고 해요. 한국 공연이 그러면 ‘물랑루즈!’보다 더 특별할 수 있어요. 신나게 웃고 울며 즐겨주세요.”

BTS 진, 입소 당일 별도행사 없다...“배웅·격려 마음으로만”

오는 13일 경기 연천 신병교육대 입소...육군 현역병 복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0·김석진)이 훈련소 입소 당일 별도의 행사를 갖지 않는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6일 글로벌 커뮤니티 위버스에 “진은 병역의무를 이행 위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빅히트 뮤직은 “신병교육대 입소식은 다수

의 장병 및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다.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삼가해달라. 진을 향한 따뜻한 배웅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특히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을 무단 사용한 각종 투어나 패키지 상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공지했다. 빅히트 뮤직

은 “당사에서는 아티스트 IP를 무단 활용한 상업적 행위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진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당사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은 오는 13일 경기 연천에 위치한 모 사단으로 입소한다. 진은 해당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은 후 자대로 배치받을 예정이다. 진은 입대 날짜 소식이 알려진 지난날 24일 위버스에 “우리 이미 여러분들 훈련소 오시면 안 된다. 저 외에 많은 사람들도 오니까 혼잡해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진은 현재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아미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맴형인 진은 멤버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군 복무를 감당한다.

다른 멤버들은 개별 활동을 병행하면서 진을 따라 순차적으로 입대한다. 하이브와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2025년 완전체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입대 후에도 국악이나 공익 목적의 무대가 있을 경우, 본인들이 참여를 희망하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그 전에 이벤트성으로 완전체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배우 정성화, 다시 ‘안중근’ 되다...영화 ‘영웅’



배우 정성화가 '영웅' 속 안중근 의사로 열연

을 펼친다.

영화 ‘영웅’(감독 윤제균)은 동명 뮤지컬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다.

1909년 10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국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정성화는 이미 독립군 대장 안중근 역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그는 2009년 뮤지컬 ‘영웅’ 초연을 시작으로, 14년간 안중근 의사를 연기해왔다. 특히 그가 부른 남배 ‘누가 죄인인가’ 무대는 유튜브에서 약 267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울림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안중근을 깊이 있게 담아낸 정성화가 뮤지컬이 아닌 영화에서는 어떻게 안중근을 표현할 지 기대를 모은다. 정성화는 “라이브를 하면서 정제된 노래가 아닌 진심 어린 감정을 쏟으면서 노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노래 호흡부터 표현방식까지 디테일에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개봉.

김남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ATA 최우수 작품상

쿠광플레이 ‘어느 날’ 이명우 PD 감독상

김남길 주연 SBS TV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제27회 아시아 텔레비전 어워즈(ATA)에서 베스트 드라마 시리즈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이 드라마는 연쇄살인범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대한민국 최초 프로파일러 ‘송하영’(김남길) 이야기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과 고나루 작가가 실화를 바탕으로 집필한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올해 1-3월 방송해 최고 시청률 8.3%(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을 기록했다.

스튜디오S 한정환 대표는 “이 작품을 만든 스태프와 배우 모두 자랑스럽다. 이슬기 CP가 원작을 선택했고, 박보람 PD는 신인으로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 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박 PD는 “김남길, 진선규

의 연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권일용 프로파일러 도움 없이는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설이나 작가와 김미주 PD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CP는 “사랑하는 사람을 끔찍한 사고로 잃은 분들에게 바친다”고 했다.

쿠광플레이 드라마 ‘어느 날’(2021) 이명우 PD는 감독상을 차지했다. 어느 날은 평범한 대학생에서 하룻밤 사이 살인 용의자가 된 ‘김현수’(김수현)와 밀박막 삼류 변호사 ‘신중환’(차승원)의 생존기를 그렸다. 영국 BBC 드라마 ‘크리미널 저스티스’가 원작이다. 이 PD는 “차승원과 김수현이 만든 캐릭터가 극 완성도를 이끌었다”며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땀 흘리며 오랫동안 호흡한 스태프·배우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했다.



ATA는 아시아의 ‘에미상’으로 불리고 있다. 1996년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TV엔터테인먼트 시상식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세계 방송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2개국 5억명을 대상으로 생중계했다.

로맨스→가족 세계관 확장...‘아바타2’

오는 14일 개봉 예정

‘아바타: 물의 길’(감독 제임스 카메론·이하 ‘아바타2’)이 확장된 세계관으로 끈끈한 가족애(愛)를 보여준다.

‘아바타: 물의 길’은 판도와 행성에서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가 이룬 가족이 겪게 되는 무자비한 위협과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를 담는다. ‘아바타’(감독 제임스 카메론·2009)의 후속작이다.

‘아바타’에서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가 로맨스를 담았다면 ‘아바타: 물의 길’에서는 가정을 이룬 그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그린다. 가족의 대서사로 이야기가 확장되면서 그들의 자녀인 ‘네테이양’, ‘로아크’, ‘투크티리’, ‘키리’, ‘스파이더’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모든 가족이 비슷하다. 사랑과 포용이 넘치지만, 화가 날 때도 있고 많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긴 이유에 아이들의 등장도 한몫한다”고 전했다.

존 랜도 프로듀서 또한 “영화를 만들 때 단순한 유희 이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어떤 가족이든 들여다보면 나름의 고충이 있



다.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도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고민하며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다. 우리 모두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문제다”라며 전 세대의 공감을 이룰 메시지에 대해 언급했다.

오는 14일 개봉.